

#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본격화

송도군 경남 사천시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사천시와 고성그린파워(GGP)가 지난해 12월 체결한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공토지비축 업무협약체결, 토지분할측량 의뢰 등 실질적인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해당 부지 분할측량과 지장물 조사 작성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토지은행을 통한 보상 실무는 내년 2~3월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토지은행에 500여 필지에 이르는 편입지 보상을 위탁하고, 보상 완료 후 해당 토지를 이관받은 뒤 2023년에 착공해 2년 내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신규 개설될 발전소 우회도로는 GGP가 사천시 경계지역에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출입하는 각종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우회도로인데, 삼천포도서관 뒤편에서 용강정수장을 거쳐 옛 향촌동농공단지 진입로 입구까지 길이 4.3km, 폭 18m, 왕복 2차선 도로로 건설된다.

이번 우회도로 개설사업에는 총 450여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천시는 토지 등의 보상비와 설계비 230억원을 GGP는 공사비 220여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시는 협약체결 후 3년 이내에 50%, 4년 이내에 100%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GGP는 시로부터 인수 완료 후 2년 6개월 이내에 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송도군 시장과의 일문일답

### Q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한 이유는?

GGP에서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 9만㎡ 부지에 1천40mw 규모 발전설비 2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202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기존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고성군에 소재하고 있을 뿐 체감 피해 척도인 주변 지역 인구 비율은 사천시가 고성군 대비 14배가 많아 사천시민들의 피해 정도가 훨씬 컸으나, 피해지역인 사천시민에 대한 대책 및 보상이 미흡한 실정이다.

발전소 추가 건설로 인한 물동량 증가와 각종 물류 운반용 대형차량이 시내 주요 도로를 통행하고 있어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소 준공 후에도 출퇴근 차량 등 교통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 발생이 예상돼 이를 해소하고 발전소와 주변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Q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노력은?

2015년 5월 발전소 피해 대책 촉구를 위한 시민결의대회 이후 시민대표, 시의원, 사천시, GGP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2차례에 걸친 실무협상이 이뤄졌으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3월부터 사천시와 GGP 양 기관의 대표자 협상을 시작으로 사천시의회의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촉구 대정부건의안 채택, 사천시민들의 우회도로 개설 촉구 집회와 5차례에 걸친 양 기관 대표의 협상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4일, 4년 넘게 끌어온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도로개설을 위한 부지 보상 및 설계비는 사천시가, 도로건설비는 GGP에서 부담하는 협약서를 체결해, 발전소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했다.

또 올해 6월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이어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향후 GGP와 협력해 우회도로 개설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Q 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토지비축 업무협약에 따라 토지매입을 착수한 뒤 약 2년에 걸쳐 토지비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우리 시는 토지비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GGP에 사천시 우회도로 개설협약서를 근거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발전소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대형차량의 시가지 내 운행으로 교통 불편을 호소하던 시민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크게 기대된다. ▼



1, 3 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촉구 사천시민 총결기대회  
2 송도군 사천시시장



3



어머,  
이걸 꼭  
타야돼

# 사천바다 케이블카

섬, 바다 그리고 산을 잇는 **국내 최초 케이블카!**